

# 로버트 C. 뉴먼 박사, 공관복음서, 강의 3,

## 마고이 : 주석 입문

© 2024 Robert Newman 및 Ted Hildebrandt

나한테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있어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난 준비됐어.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는 공관복음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세 번째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주석 입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주석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의미하는 기술적인 신학 용어로, 아마도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egesis는 '끌어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구문에서 유래하며, 그 개념은 본문에 있는 의미를 밖으로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이는 때때로 저자가 텍스트에 넣지 않은 의미를 사람들이 텍스트에 넣는 것을 의미하는 eisege sis와 대조됩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그런 일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해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제시는 해석학이나 고급 그리스어 또는 이와 유사한 신학교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과 관련하여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두 권의 책은 Dan McCartney 와 Charles Clayton의 *Let the Reader Understanding*(1994년, Bridgepoint 지음)과 Robert Stein의 *A Basic Guide to Interpreting the Bible*, Baker (역시 1997년)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주석에서 몇 가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몇 가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석을 더 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몇 가지 장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강좌의 이번 단원에서는 내러티브 장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 그 중 하나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박사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살펴볼 것입니다. 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석은 단순히 기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몇 가지 규칙을 배우고 생각하지 않고 적용하면 됩니다. 적어도 보통 사람이 과학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것은 완전히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놀라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과학에도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작업하고 있는 구절에서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을 주석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작업하고 있는 구절에서 주석에서 논의된 것을 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거나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주석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항목, 즉 우리가 구축해야 할 기능을 수행하면 해가 갈수록 주석이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자, 우선 첫 번째인 영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모국어는 성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 성경 지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더 많이 알수록, 현재 작업하고 있는 특정 구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성경이 도움이 되도록 성경을 설계하셨습니다. 컴퓨터 성경이 출현한 이후로 우리는 특정 단어, 특정 영어 단어, 신약성서, 특정 그리스어 단어 또는 구약성서에서 나타나는 모든 단어를 찾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특정한 히브리어나 아람어 단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문제에 관련된 모든 구절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중 일부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귀하가 우려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 참조 성경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구절로 이동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제 색인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 구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한 구절을 공부한 후에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설교나 성경교육, 주일학교 수업 등이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흥미롭거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쎄, 남은 생애 동안 계속 노력해야 할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모국어 또는 모국어로 된 성서 지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려고 노력했고, 지난 40~5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성경의 장수를 세어보면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으로 총 1189장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안에 성경을 통독하려면, 하루에 여러 장. 정확히 말하면 365일에 한 번씩 읽으려면 하루에 3.26장을 읽어야 한다.

글쎄, 그게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대략 하루에 3장 정도이고, 원한다면 일요일에는 5장이 됩니다. 혹은 하루에 4장을 읽으면 구약은 한 번, 신약은 두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시편의 한 구절, 짧은 잠언 등을 제공하는 이 1년짜리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앞뒤로 점프하면 연속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확실히 그런 일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버전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는 한 번은 NIV 연구 성경의 모든 주석과 본문을 읽으며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당신의 모국어인 성서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등을 배우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경적 언어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야 합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등을 배우기 위해 모든 노력,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이 지식의 대부분이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문제에 매일 또는 매주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원활 경우 어느 정도 더 나은 형태를 취하고 더 나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전 동료 중 한 명인 Biblical 교수인 Tom Taylor가 묵상 책을 추천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Google에서 검색해 보세요. 길을 위한 빛(Light for the Path)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그리스어 신약의 짧은 구절을 매일 제공하고 히브리어 성경의 한 구절 정도를 매일 제공하며 번역에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당신이 여기서 어떤 종류의 기독교 예배에 종사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기본적으로 그 주에 설교할 구절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또는 당신이 주일학교나 성경 수업, 성경 공부 등을 가르치고 있다면 말입니다. 해당 구절을 번역하기 위해 구약과 신약을 혼합하여 두 언어의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친구 알 잭슨(Al Jackson)은 버지니아에서 수년간 목사로 있었는데 지금도 살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신약 그리스어 학생들을 위해 메츠거의 어휘 보조 자료를 살펴보곤 했습니다. 꽤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그것은 나보다 낫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빈도 목록에서 정기적으로 30개까지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그 외에도 10번 이상 나타나는

단어로 내려가는 목록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 나는 가끔 문법을 복습해 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로 흥미롭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어 초견 읽기도 연습하세요. 사전이나 어휘집을 보지 않고도 그리스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종종 새신학교 학생들이 그런 일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헬라어, 신약, 하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성경 낭독이 있을 때 그들은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성경, 헬라어성경, 하브리어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가고 나면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응.

좋아요, 그래서 성경적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두 번째로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세 번째 작업은 성경 배경입니다. 이제, 당신이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어떤 능력으로든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다음 설교나 다음 성경 공부를 위해 특정 구절을 읽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세션이든 뭐든.

특정 구절에 대한 이 특별한 연구는 당신을 주석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성경 백과사전 등을 접하게 하여 특정 구절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어느 정도 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배경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측면은 특정 구절보다 더 넓은 개요를 가진 자료를 통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역사, 고대 문화 및 신약성서나 구약성서 시대의 일부 다른 종교에 대한 개요를 얻는 것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그 시대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 내용을 텍스트에서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쎄, 이런 종류의 배경은 상당히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만 나올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수년 동안 1968년경부터 읽은 모든 책의 목록을 보관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교를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년에 50권이 넘는 책이었는데, 내 생각엔 이 중 약 6년 동안은 100권이 넘는 것 같습니다. 결국 20년 전쯤에 곁길로 빠져서 포기했고, 지금은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내 계획은 일부 주요 자료를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꽤 어려운 헬라어로 요세푸스를 읽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해 두루마리에 나오는 요세푸스의 영어가 그런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배경 지식을 제공하며 결국 당신은 이러한 분야 중 하나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세푸스, 사해 두루마리, 구약성서, 신약성서, 외경, 나그 함마디, 영지주의 문헌 및 일부 랍비 문헌을 읽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을 때 저는 현재 Philo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hilo 복사본에 북마크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몇 년 동안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한 고대 역사에 관한 작품이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의 백과사전, 로마의 일상생활, 고대 그리스 전쟁, 고고학 등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읽는 내용 중 일부를 통제하는 신약학 교수였습니다. 당신이 목회자나 상담자라면 분명히 목회 문제, 상담 문제 등을 읽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더 넓은 영역에 대한 독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노력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가장 완전한 정신적, 서지적 도구는 진정한 영적 삶과 진정한 영적 통찰력 없이는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모든 주석적 기술은 결국 우리의 정죄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경험을 쌓으면서 영적인 통찰력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통해, 문제를 겪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종종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는 성경의 것들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주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성경 해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공관복음서의 장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제가 아는 한 프랑스어에서는 그냥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영어로 옮겨가면 이는 전문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어 단어인 솜브레로(sombrero)는 단지 모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멕시코인들이 쓰는 커다란 플로피햇을 뜻합니다. 장르(genre)는 일종의 문학, 일종의 글쓰기, 또는 일종의 말하기를 가리키는 영어 문학 연구의 용어입니다.

그것은 산문과 시의 구분만큼 넓을 수도 있고, 시나 소네트 같은 특별한 종류의 전문 시처럼 좁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 장르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장르의 특징 목록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장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스의 몇 주 동안 우리는 네 가지 다른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각 구절은 다른 장르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기적 이야기와 비유, 논쟁적인 이야기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보통 짧은 수업 연습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시의 특징은. 이에 대한 대답은 실제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대부분은 히브리 시에 대해 꽤 많이 생각해 보았으며, 히브리 시는 영국 시와는 달리 반드시 운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운율 등에 대해서도 항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연속적인 라인이 동일한 것을 반복하거나 약간 추가하거나 그 반대의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방식으로 서로 관련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병렬성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동전의 뒷면을 보면 우리가 영국 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히브리 시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시와 히브리시는 또한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시에서 찾아야 할 것들의 목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설교의 장르를 시험해 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설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뭐, 설교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꽤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설교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여 설교는 교회나 회당의 회중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내용은 올바른 행동이나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는 방식.

흔히 어떤 종류의 설교로 시작하는 고전적인 설교를 생각한다면, 나는 꽤 현대적인 고전 설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중간에 끝나고 결론을 고르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이야기를 끝까지 마치세요. 이것이 바로 문학 연구에서의 포괄성(inclusio)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최소한 고전 설교는 3점을 내는 경향이 있었고, 어떤 분은 구절에 따라 2점, 4점을 내기도 했습니다.

설교 요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포인트 후에 해당 포인트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결론 섹션 등을 위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설교가 시나 그런 종류의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르, 말장난은 어때요? 말장난이 뭐예요? 글쎄요, 원한다면 일종의 농담이겠죠. 이는 영어에서 비슷하거나 영어에서 매우 유사한 두 단어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농담입니다.

나는 듀크 대학의 물리학 교수 중 한 명이 나에게 한 노부부와 그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목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두 번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노부부, 부모님은 목장을 '포커스목장'이라 불렀다. 누군가가 왜 그곳을 Focus Ranch라고 부르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가 아들들이 고기를 키우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삼중 말장난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체와 그 아들들을 위한 태양. 그리고 태양 광선은 동물과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글쎄, 나는 그것에 대해 당신을 때려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과정에서 다루는 장르 중 일부와 다루지 않는 장르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사의 장르는 일반화된 서사이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기말 과제를 할당했는데 그들은 6~8기 과제 주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가다라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학기말 주제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하는 비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왕실의 혼인 잔치.

학기말 주제의 경우, 학생들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사악한 소작인과 사악한 소작인을 좋아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설명으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바알세불의 귀신 쫓아내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에 이삭을 따는 학기말 주제입니다. 복음서에는 단지 제한 때문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빈도수에 관계없이 등장하는 다른 장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담론이 있습니다. 담론이란 무엇입니까? 글쎄요,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대화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앞뒤로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명이나 음식이나 의복이나 그런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약성경과 특히 복음서에 여러 번 나타나는 또 다른 장르는 상징적 행위 또는 비유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는 8~10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은 실제적인 행동이자 상징적인 일이며,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병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징적 행동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글쎄요, 그게 더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유를 사용하는 비유와 달리 사람은 자신이

비유를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이한 행동과 문맥을 통해 상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신 것은 확실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찾고 있는 주님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실 것이며, 말라기에서 그가 오시는 날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그것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배경처럼 들립니다.

그들이 성전을 오용하는 것에 대한 예수의 말씀도 그러한 범주에 속합니다. 제 생각에는 신약성서에는 두 번만 나오지만 구약성서에는 꽤 많이 나오는 장르가 족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하나가 있는데, 둘 다 예수에 관한 것이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흥미롭습니다. 그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누가의 족보는 아마도 마리아의 계보이고, 마태의 족보는 요셉의 계보일 것이다.

구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논의할 때 다시 돌아와 그것에 대해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일반적인 또 다른 장르는 우리가 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곳은 보통 두 사람이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유혹 이야기는 사탄과 예수님의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말을 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자, 이것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다양한 장르의 샘플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내러티브 장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기 전에 그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고 실제로 그것의 특정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시도하는 일은 원하는 경우 장르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내러티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글쎄요, 내러티브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야기, 설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사실일 수도 있고 허구일 수도 있지만, 나는 어떤 식으로든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내러티브가 사실이라고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암양을 데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또는 선지자가 아합에게 도망친 죄수에 대해 말하고 그가 부상당한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실제로는 부상을 입었지만 그것은 가짜 상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예입니다.

따라서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것이 반드시 성경의 무오성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비록 그 중 다수가 이 또는 다른 해석자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내러티브는 정말 광범위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한 번 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장르가 산문이나 시만큼 넓을 수도 있고 다른 장르만큼 좁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매우 광범위한 장르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문의 하위 클래스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서술형이지만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5장에 있습니다.荷馬의 일리아드는 서술형이지만 시 등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밀턴의 실낙원은 서술형이지만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대 문학에서는 대개 산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산문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와 기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박람회, 당신은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두 사람이 오가는 것이지만, 물론 대화가 내러티브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담화, 1인 발언 등

따라서 기도, 설명, 대화, 담화 등 이 모든 것들은 내러티브에 포함될 수 있으며, 때로는 내러티브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긴 대화가 되어야 하지만, 짧은 대화에도 일종의 내러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의 산헤드린에서 한 연설은 담론이지만 원활 경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안에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산재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세, 또는 그런 종류의 것.

사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서술형이지만 다른 장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는 결국 장르를 정의할 때 장르를 특징짓는 몇 가지 특징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는 배우나 캐릭터, 즉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에서는 사건을 유발하거나 사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이야기에서 보게 될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 다음 사건이나 행동 자체, 서사에 의해 설명되는 사건, 즉 배우, 사건, 장면,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 시간, 국가, 지역, 마을, 실내, 실외 등이 있습니다. 내러티브의 다소 중요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플롯, 특히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신중하게 구성된 내러티브의 플롯입니다.

일화를 말하는 사람은 유머러스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외에는 그다지 줄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줄거리는 내러티브에 나오는 사건의 상호 연결 또는 전개입니다. 복잡한 내러티브에는 하나 이상의 줄거리가 있으므로 소설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얹혀 있는 다양한 줄거리가 있습니다. 줄거리 자체는 종종 일종의 갈등이므로 때로는 긴장이 고조되고 절정에 도달한 다음 갈등이 어떻게든 해결되고 긴장이 풀리는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말해주세요. 따라서 이러한 기능은 적어도 내러티브, 배우, 이벤트, 장면, 플롯, 플롯 또는 플롯의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신약성서의 문학적 특징에 대해 다소 도움이 되는 작품은 Leland Ryken의 책인 *Words of Life, a Literary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라는 책입니다. Ryken은 나중에 그것을 성경 전체를 포괄하도록 확장했으며, 확장된 버전의 제목은 *Words of Delight*입니다. 글쎄요, 그는 복음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이야기를 제안하고, 다른 작품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 장르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반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언문 이야기, 선언문 탄생 이야기, 예를 들어 선언문이나 탄생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분명히 중요합니다. 요한이 태어나리라는 소식이 엘리사벳에게 전해졌고, 예수께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이 마리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특이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포함됩니다.

물론, 탄생 이야기에는 초자연적인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지만,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어머니와 함께 태어났다는 점은 특이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실제로 예수를 위해 동정녀 탄생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고대 이야기에서, 심지어 현대 이야기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성격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성탄절 이야기, 예수의 독특성에 대한 강조, 다양한 사물의 역사적 타당성, 초자연적 사건, 예언의 성취, 그리고

어쩌면 일종의 흥분 등을 통해 스가랴가 성전에서 나올 때 일어나는 흥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그를 병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음이나 탄생 이야기. 두 번째 예는 부르심이나 직업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꽤 특징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변으로 오셔서 배에서 일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복음서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추종자 등을 얻는 일부 리더가 어떤 식 으로든 그들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소명과 소명 이야기의 특징은 누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부르심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등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 친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부르심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아마도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일 겁니다. 부정적인 반응의 예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인정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복음서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로빈후드 이야기에는 로빈과 그의 부하들이 이 이상한 흑기사가 사자왕 리차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인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서에서 더 큰 내용을 다루는 것은 영국 왕만이 아니라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르에 대해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식하게 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이 남자는 내가 한 일을 다 말해줬어요.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런 표본이겠죠.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당신은 나다나엘과 예수께서 당신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당신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때 빌립이 그에게 말한 것이 사실임을 깨닫습니다.

인정 이야기. 네 번째 범주는 목격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나 다른 인물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한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누구신지 전하는 증인의 이야기로 분류될 것입니다. 아니면 치유된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의 누구신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결하는 귀신들린 이야기 속에서 고침받은 귀신들린 자를 보내셔서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 등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증인 이야기. 만남의 이야기-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찾으시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주도권 또는 아마도 그들의 주도권으로 시작하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명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시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그들의 반응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아마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나다나엘을 언급한 것 등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개인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와 예수를 따르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점차 커지는 다른 사람들도 그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갈등이나 논쟁의 이야기.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흔한 이야기들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로 여겨지는 반대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맞서는 주인공이시는데, 거기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고 그 일을 공격으로 바꾸는 방법, 예수님이 어떻게 이점을 취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혜롯당과 함께 가지고 있는 완벽한 함정은 세금 문제에 대해 예수님을 설득하고 원할 경우 그분이 어떻게 그들에게 그 문제를 돌리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범주는 선언 이야기이다. 정보에 근거한 비판. 이것들은 지금 말하는 이야기(talking story)라고 불리며 예전에는 변종(apothem)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건은 예수께서 하신 매우 놀라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한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원하신다면 선언으로 끝나는 갈등 이야기의 예가 될 것입니다. 기적의 이야기.

우리는 우리 주석 구절 중 하나에서 기적 이야기라는 장르로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Leland Ryken은 먼저 필요성이 확립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전형적인 구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대개 이 사람이 수년 동안 절름발이 였거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거나 이 사람이 수년 동안 악마에 사로잡혔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항상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는 베데스다 수영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그곳에서 자원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귀신들린 자가 예수께로 달려오는데, 귀신들린 자가 누구인지 듣고 도움을 구하러 달려오는지, 아니면 귀신들이 공격하러 와서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사건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돋는 사람은 아마도 어떤 방식으로든 믿음이나 순종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름발이를 안고 있는 네 사람은 지붕을 부수고 무너뜨립니다. 분명히 나는 그런 일을 모두 겪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등장인물들은 그 기적에 반응하거나 예수님 같은 것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표현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등장인물들은 그 기적에 반응합니다. 항상 그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장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징 목록이 있고 특정 사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요한 것. 그 중 대다수는 해당 장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홉 번째 범주는 수난 이야기, 즉 예수의 재판, 죽음, 부활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부 문헌에서도 일종의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브레이브하트(Braveheart)라는 이름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것은 윌리엄 월리스 등의 죽음과 같은 열정적인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늘에 가두어 놓았고, 사실 그 사건의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죽음의 장면을 특징으로 하며 다른 사람의 전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난 이야기는 각 복음의 전체 섹션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구성하는 별도의 이야기로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yken은 여기서 열 번째로 하이브리드 스토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미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두 가지 또는 심지어 세 가지의 특정한 다른 것들의 조합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인식, 선언, 만남 등을 낳는 다른 기적 이야기의 요소들을 결합한 서사가 그런 범주에 속할 것이다. 글쎄, 그것은 내러티브 장르에 대한 매우 빠른 둘러보기이며 주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약간의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야기에 대한 주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에 대한 주석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박사들의 방문 사건입니다. 전체 장은 실제로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실에서 상황에 따라 나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번역하도록 배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급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을 가리키며 우리를 위해 1절을 번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 자신이나 학급의 다양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것저것 번역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문법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서 그 모든 것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대한 이 번역은 제가 쓴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끔 이런저런 일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은 연합성서공회가 발행한 그리스어 신약성경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뒷면에 사전이 있고, 제 생각엔 이것이 아마도 제4판일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여기저기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중립적으로 구성된 제목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침례교나 가톨릭교 또는 그런 종류의 특징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첫 번째 섹션은 제목, 현자들의 방문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번역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 질문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 박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Bauer, Arndt, Gingrich 사전에는 Bauer, Arndt, Gingrich가 있고, Donger는 Magos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공하는 첫 번째 정의는 마고스이지만 다음에는 괈호, 바빌로니아 또는 페르시아의 현자, 성직자, 점성술, 꿈 해석 등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거기에 제공하는 일종의 빠른 정의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런 특이한 단어를 원하고 그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하고 싶을 것입니다.

제 생각엔 King James, Wise Men에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사실 좋은 번역이지만, 단 하나의 번역도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그리스어에서 단지 찾아보고 싶었지만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몇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그 단어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 왔으며 Anatole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아나톨리아(Anatolia)는 아나톨리아 동부 지역인 그리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떠오르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해가 뜨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쪽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글쎄, 나는 라틴어 복수형인 Magi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Magus와 Us, 그리고 라틴어로 Magi, Gi입니다.

물론 그리스어는 Magus와 Magoi 인데, 여기서 마술사(magician)라는 단어를 얻었고, 신약에서는 단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사이먼 마구스(Simon Magus)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2절.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몇 가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동쪽에서는 떠오르는 것, 타임머신이 없는 것, 거기에 없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불확실해요.

우리가 동쪽에 있을 때 그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우리는 그것이 떠오를 때 그것을 보았고 그것은 별, 지구가 회전하는 방식 때문에 별이 동쪽에서 떠서 머리 위로 가고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소 동쪽에 놓입니다. 극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동쪽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식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별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또는 그것이 별이었는지를 알려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절하거나 경배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모호하고 그들 자신의 배경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를 숭배해야 한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그저 몸을 굽혀야 한다고 느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멀리서 오고 있다는 사실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누군가가 먼 곳에서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이 아닌 누군가에게 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힌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절, 헤롯왕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소동하니라.

여기에는 많은 배경 지식이 있으므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람이 헤롯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아마도 저자가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는 다른 헤롯 왕이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으며, 이 과정의 다음 섹션에서 이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왕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요세푸스의 경력 말기인 요세푸스에 나올 즈음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헤롯 왕이 있습니다. 4절,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마시아흐(Mashiach)의 그리스어 번역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지만 그 둘은 같은 의미이며 일종의 호칭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헤롯이여,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내가 6장으로 넘어가리라 또 유대 베들레헴 땅 너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고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인용문이 있습니다. 다소 자유로운 견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말은 결코 흥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너희는 가장 작으나 그와 비슷한'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랍비 학자들이 미드라쉬(midrash)라고 부르는 것, 즉 본문을 해석적으로 읽는 것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미가가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곳이라고 말했지만 독자 해석자는 메시아가 그곳에서 오신다면 더 이상 가장 작은 곳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문입니다. 그것은 미가서 5장에도 나오는데, 일부 주석가들은 그것이 다른 구절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제안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두세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내니라. 정확하다(Exact)는 본문에서 별도의 단어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한 동사 akribo 이며, 이는 매우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akribos에서 유래합니다. 실제로 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고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별이 처음 나타난 날짜나 그런 종류의 날짜를 알려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들을 은밀히 부르십니다. 즉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둘러 서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부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왕들 사이의 표준 절차입니다. 돌아가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아도니야가 왕국을 가지고 도망갈 것 같을 때 밧세바가 와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하고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 Nathan이 들어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것은 꽤 특징적인 일인데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보면 압살롬과 그의 보좌관들이 아히도벨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가 가고 후새가 불려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의 생각을 묻고, 다른 사람이 추천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괜찮나요? 무엇을 제안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당신은 모든 정보와 조언자를 얻는 상당히 표준적인 왕실 절차를 얻게 됩니다. 글쎄요, 여기 비밀리에 아마도 고문조차 없을 것입니다.

헤롯과 동방박사. 그리고 그게 다 뭐죠? 글쎄, 우리는 8절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는 “가서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 고 말했다.

당신이 그를 찾으면 나에게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서 헤롯을 알고 여기서 그 속편을 보는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발언이지만 그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를 죽일 것입니다. 헤롯에 대한 배경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왕을 알더라도 대부분은 자신의 자녀가 아닌 후계자가 태어난 것에 대해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they, 그리고 인칭 대명사로 사용된 정관사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떠나가는 것을 듣고 동방에서 보거나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아직도 어렴풋한 것을 깨닫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거나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오기까지 하다가

아이가 있던 곳에 멈춰 섰다. 이것은 베들레헴의 별과 관련하여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다소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연스러운 해석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실제로 별의 인도를 받았고, 베들레헴까지 데려가는 데는 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베들레헴에 있는 집인 집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무엇이든-10절.

이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보다 더 번역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기쁨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 것은 말 그대로 매우 강력한 구조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정말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마도 놀랐다고 말하는 것이 공평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는 확실히 흥분됩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마리아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보물 상자를 열어 그에게 선물을 바쳤습니다.

금과 유향과 물약입니다. 제가 번역한 '보물상자'라는 단어는 꽤 일반적입니다. 보물 상자, 창고, 보관된 것, 보물 등

그래서 그들은 보물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무엇이든 가지고 다니면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창고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창고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 그리고 유향과 물약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표준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향으로 번역되는 것은 실제로 리바노스이며 Bauer와 Gingrich는 이것이 흰색 수지성 고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영어로 가지고 있는 프랑스 향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십자군, 프랑크족이 십자군 전쟁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서 그것을 가져왔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심지어 흰색 수지껌도 일종의 향이기 때문에 약간 얇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향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솛덩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몰약은 또한 수지성 고무이므로 둘 다 일종의 식물, 즉 식물의 수액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Bauer와 Gingrich가 여기에 추가되어 때로는 방부 처리에 사용됩니다. 아마도 거기에도 힌트가 있을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떠나 자기 나라로 갔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꿈이나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얻지 못한다기보다는 단지 간단한 진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헤롯은 어느 집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자들은 알아내기 위해 고문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는 도망갈 시간이 조금 더 있을 것입니다.

UBS 헬라어 신약성서는 이 지점에서 다음 세 절에 대해 이집트로의 피신이라는 또 다른 제목을 제시합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보라, 주의 사자 곧 주의 사자가 현동하여 요셉에게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여 거기 있으라 아니면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4절. 이에 그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스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밤이 이런 종류의 속격입니다. 알았어, 밤에는 녹토스, 밤에는. 15절.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애굽에서 이루려 하심이라.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머무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어에서 사용되는 완곡어법의 예를 봅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헤롯의 telute, end, 입니다. 헤롯이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영어로 완곡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완곡어법은 실제보다 더 기분 좋게 들리는 말을 하는 방법입니다. 괜찮은. 호세아 11장 1절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것에 대해 한 마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노트에서 할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의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당신은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까? 글쎄, 거기에는 몇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마태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을 그리고 있으며 아마도 주님의 종과 이사야 40-34장의 종 부분 전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구약의 생각을 집어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고 때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 행했어야 했던 일, 즉 열방에게 빛이 되어야 했던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매튜의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사야의 생각이나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광야 이야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사탄에게 응답하시고, 광야 구절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사탄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자신의 유혹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유혹 사이의 유사점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시험을 받고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공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광야가 아닌 동산에서 유혹을 받고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동산이 아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성공하셨습니다. 원한다면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로 이어지는 다양한 주제의 흥미로운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UBS가 유아 살해에 대해 분류한 세 구절의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됩니다. 16절, 그다음에 헤롯은 자기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이고 분명히 그렇지 않은 음모를 보지만 그것은 헤롯의 아주 좋은 특징입니다. 그는 심히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서 미리 정한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으니 거기에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매우 화를 냈고, 우리가 행동 시작을 위한 상속녀, 즉 행동 시작을 위한 상속녀라고 부르는 좋은 예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말하는 대신, 그는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대해 듣게 되는데, 이는 내가 초기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영토가 나누어진 방식이며 아마도 매우 혼란 고대 구분은 마을과 성읍 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영토를 어떤 식으로든 관리했습니다.

두 명의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쓴 이스라엘 고고학에 관한 책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지금은 자세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은퇴할 때 나눠준 도서관의 일부입니다. 어쨌든, 그가 동방박사들로부터 알아낸 시간에 따르면, 동방박사가 그에게 별이 나타난 것은 2년 전이라는 뜻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헤롯의 성격을 조금 살펴보면 그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약간 위험해 보이면 제거하십시오. 따라서 그것은 아마도 그가 그 나이에 가까운 아이들을 제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년의 상당 부분 또는 아마도 1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17 절 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에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 하신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은 자기 아이들 때문에 울고 있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녀는 위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의 또 다른 성취 인용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여기서 예레미야서 31장에 묘사된 사건이 이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종의 유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성취를 사용하는데, 그 중 일부는 예언의 문자 그대로 성취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일부는 일종의 주제를 수행하고 그것이 예수의 사역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은 애굽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말하면 그냥 헤롯인 것처럼 들리지만 아마도 원하는 경우 자신의 지위를 위험에 빠뜨릴 후계자를 보고 싶지 않은 헤롯과 그의 부하들이 아마도 거기에 있는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약간의 통찰력일 것입니다.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동방박사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셉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그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따라서 메시지는 분명히 그 영역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22절,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되어 그의 아버지 헤롯을 삼았다 함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당신은 요셉이 아켈라오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세푸스로부터 얻은 정보와도 일치합니다. 사실 아우구스투스는 아르켈라오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을 거쳐 민족왕이 되었고, 그 후 시험 기간에 실패했지만, 아마도 10년 정도는 지속되었을 것이다. 요셉은 분명히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나쁜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곳에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에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는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겉으로는 온순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겠지만, 그 사건을 보더라도, 그것은 그의 주도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명백하게도 조셉은 그것이 더 안전한 움직임이라고 느꼈고 그것이 그가 가는 곳입니다.

23절 :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이라 그럼, 그것은 흥미로운 발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확한 인용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내 추측으로는 이것이 분기 구절에 대한 암시인 것 같습니다.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는 네체르(netzer) 입니다 .

네체르 도시 라는 도시로 갑니다 . 그러면 그는 네체리 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사야서 11장 1절과 53장 2절, 그리고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메시아를 가지라고 두 번 언급한 것입니다. 세 구절 모두에서 항상 netzer 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빠른 여행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그 안에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 구절의 서사적 특징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내러티브는 캐릭터, 이벤트, 장면 및 플롯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캐릭터는 매우 간단합니다. 요셉, 마리아, 예수.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유일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좋아요? 마리아와 예수는 그 일을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동방 박사가 있는데, 동방 박사는 모두 다시 한 그룹으로 활동합니다. 이것은 해설자의 선택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이 발타자르와 멜코르 등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헤롯왕은 확실히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화자 입장에서 그들은 단지 하나의 집단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등장인물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건, 음, 나는 전체 이야기를 다시 말하지 않고도 일련의 사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들이 본 별을 가진 갓 태어난 왕에 대해 묻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헤롯은 불안해했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넷째, 헤롯은 아기에게 경배하려는 척하면서 동방 박사들과 비공개 면담을 합니다. 다음으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며 아기에게로 인도됩니다. 그러자 동방박사들은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주더니 꿈에 경고를 받아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헤롯이 있는 곳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 요단강을 직접 건너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꿈에서 경고를 받은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을 쫓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그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노하여 군인들을 보내 아이들을 죽인다. 헤롯이 죽은 후,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 갈릴리에 정착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장면은, 아시다시피 동쪽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첫 번째 장면이고, 베들레헴이 두 번째 장면이고, 이집트가 세 번째 장면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마지막에 다시 언급되지만 실제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주요 장면이고, 이집트가 약간 언급되고, 갈릴리는 모든 플롯에서 언급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플롯이 무엇인지 말하기는 종종 약간 까다롭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죽이겠다는 위협을 피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찾고, 찾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조되게 설정하고 있는 걸까요? 내 말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들은 후에 그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확실히 그들은 마을의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헤롯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외에는 아직 많은 것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마도 약간의 대조가 있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좌를 보호하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명확한 음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반대자들의 사건과 행동을 사용하십니다.

헤롯에 대한 조치로 마리아, 요셉, 예수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은 그들을 다시 데려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중 일부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리랜드 라이켄의 범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종류의 서사를 보고 있는가? 글쎄요, 그건 분명히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동방박사와 예수의 만남 이야기? 예, 예수님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갈등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로 헤롯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천사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동방박사나 요셉의 영리함이나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구절에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생들이 번역 등을 하는 동안 작성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일종의 작은 학습 시트로 내놓았습니다. 다시 돌려주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가 학습 시트에 있던 질문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누구였나요? 몇 명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잠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magi*라는 용어는 라틴어인 *magus* 또는 그리스어인 *magus*의 복수형입니다.

그것은 마술사를 위한 그리스-로마 문학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사도행전 13장 6절과 8절에서 마술사 엘루모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르기오 바울로를 이끌고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려 했던 키프로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8-9장에서는 동족사인 마구오(*maguo*)가 시몬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전통적으로 마술사 시몬이라고 불렸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는 분명히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 로마 이전 시대에 꿈이나 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페르시아와 바빌로니아의 현자나 제사장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마태복음의 히브리어 본문이 중세 사본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고대의 것일 것이며 히브리어로 된 마태복음 원본의 다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본일 수도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 거기에 도착하면 그것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처음 나타날 때 *magi*를 번역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져옵니다. 번역하든 말든, 좋아요, 그것이 제공하는 용어는 별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공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성가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방문한 동방 박사의 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전통적인 숫자인 3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마도 금과 유향이라는 세 가지 선물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우린 거기 없어, 알았지? 이 유인물의 두 번째 질문: 별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현상이 제안되었나요? 각 제안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구절의 어떤 데이터를 테스트해야 합니까? 글쎄요, 우리는 여기서 별의 정체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트의 다음 섹션은 별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혜성, 최소한 혜성, 초신성, 붕괴되어 갑자기 전체 은하계만큼 밝아지는 별, 행성의 결합 등 여러 시대에 걸쳐 수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두 개의 행성이 매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한 불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식으로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마태나 그의 출처가 발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복음주의적인 작가에 의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마태에 따르면 별은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와서 문의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그들을 모두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헤롯을 떠난 후에 나타나서 어떻게든 그들을 올바른 장소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정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헤롯이 왜 화를 냈다고 생각합니까? 이 그림과 일치하는 다른 고대 자료를 통해 그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내나요? 보통 사람은 이러한 고대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석이나 성경 백과사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찾아 찾아봅니다.

그는 아마도 갓 태어난 왕이 자신의 통치, 특히 그의 후손의 통치에 가할 위협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살아 있는 동안 왕노릇을 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더욱 관심이 쓰린다. 나는 요아스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과 아달랴가 자기 아들의 모든 자손을 죽인 태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달랴가 보인 반응을 기억합니다. 그것에 대해 밖으로, 반역! 그녀는 왕좌 냄비를 얻기 위해 이 사람들을 모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전자를 블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고대 1611년과 1717년의 요세푸스로부터 헤롯이 자신의 아들 세 명을 죽였고, 그때 그들이 자기를 계승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한 아들이 다른 두 아들에 대해 성급하게 통치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살해당했고, 그 일이 몇 년 뒤 그에게 역효과를 내어 살해당했습니다.

우리가 요세푸스에게서도 알고 있듯이 헤롯은 자신의 죽음을 축하하는 큰 잔치가 열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 내가 죽을 때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으면 군인들이 그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여러 유대 지도자들을 경기장에 모으게 했습니다. 글쎄, 헤롯 바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모두 죽으면 음악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죽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헤롯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군인들을 해산시키고, 헤롯 대왕의 죽음을 축하하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무엇이었나요? 지난 20년 동안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전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예루살렘 별에 대한 매우 강력한 후보를 제공하는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베들레헴의 별: 그것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제목의 PowerPoint 강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IBRI 홈페이지에서 따라서 [www.ibri.org](http://www.ibri.org)에 접속하면 상단에 작은 Google 엔진이 있고 거기에서 Star of Bethlehem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McEvity 가 제작한 The Star of Bethlehem이라는 비디오도 있습니다 . 누군진 모르겠지만 광고에 출연했었으니 꽤 알려진 것 같아요. 이는 Rick Larson이 발표했으며 [www.bethlehemstar.net](http://www.bethlehemstar.net)에서 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고 그들은 다소 정교한 프로그램인 컴퓨터 플라네타륨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결국 저는 이 특정 사건을 둘러싼 사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 밀접한 접속사이므로 여기서는 설명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기원전 3년과 2년에 발생한 일련의 행성 합으로, 동방박사에게 유대인에게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기원전 2년 6월 17일 사자자리에서 목성과 금성 사이의 결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두 행성은 육안으로 볼 때 유난히 밝은 단일 별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천문관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별 하나처럼 보이다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실제로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별이 바로 저기에 있어요. 저것.

그들은 아주 아주 가깝습니다. 계산해 보면 매우 드뭅니다. 그러한 가까운 결합은 하나의 별로 나타났을 것이며 인류 문명의 전체 역사에서 단 한 번만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드문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동방 박사들이 수백 마일을 데려온 것은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태양계의 전체 물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즉, 실제로 계산을 거꾸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컴퓨터로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필요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컴퓨팅 성능을 개발하면 태양계 천체 물리학에서 인상적인 기록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의 기록이 없었다면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한 동료가 컴퓨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고대 역사학자, 고대 세계의 역사가들을 위한 책으로, 기원전 600년부터 서기 600년까지 태양, 달, 주요 행성의 위치를 알려준 책입니다.

그러다가 아마추어 천문학자이자 나중에 *Sky and Telescope*의 작가가 된 한 동료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예수 탄생 즈음에 가까운 연관성을 찾다가 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 모든 컴퓨터를 보유하게 되었고 실제로 화면과 모든 것에 시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종류의 일을 하기 위해 위치 정보 테이블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튜가 우리에게 자신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 기록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마태복음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며, 로버트 건드리(Robert Gundry)가 거절한 바로 그 시기에 이 복음이 나왔다는 점은 다소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의 방문 등을 통해 고안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그게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여기서 논의를 중단하기 전에 몇 가지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서술하는 마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매튜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분명히, 그것은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방인 동방박사의 반응은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헤롯 왕의 반응과 대조됩니다. 이는 또한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과 대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그들은 헤롯이 그의 생애 말년에 커져가는 질투심과 비합리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상황을 완화합니다.

마태복음은 네 복음서 중 가장 유대인적인 복음이지만 이 사건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마태는 복음이 유대인보다 이방인 사이에서 더 잘 받아들여졌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에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우 분명합니다. 내 생각에 마지막 질문은 이 구절에 대한 성경 공부를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어쨌든 이 길이의 많은 구절, 전체 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청중에 따라, 원하는 경우 현재 당신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에 따라 강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말은, 우리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에는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제안하는 이러한 특별한 요소들은 모두 본문에 존재합니다. 첫째, 많은 주석가들이 동방 박사의 방문이나 별의 종말의 역사성을 의심하거나 무시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놀라운 증거를 제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 생각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다. 나는 내 친구 중 한 명인 John Studenroth가 이 비디오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사건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점성술이기 때문에 이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 그것은 일종의 점성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이 이교 언어인 그리스어로 신약성경을 기록하고 이교 언어인 라틴어, 그리고 북유럽 등의 더 많은 이교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점성술에 대한

하나님의 추천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권고입니다.

원한다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들의 자비 때문에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혼합된 복음서의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땅에 오셨고,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지만, 많은 사람,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였고, 그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주석에 대한 소개와 우리가 일반적인 서술 구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석에 대한 우리의 논의입니다. 그럼 여기 공관복음의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아,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손도 거의 못댔어요.